

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우수상

김○빈(유아교육과)

Lang 학습관

내 용

1학기 교내 모의토익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토익이 수능 공부할 때의 영어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다. 영어에 대한 나의 부족함과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Lang 학습관'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돈 들이지 않고도 질 좋은 영어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또한, 내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교양 과목인 영어커뮤니케이션에서 원어민 교수님과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 회화적인 부분의 역량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 또한 했었다. 무의미하게 방학을 보내는 것 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공부를 하며 여름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 없이 바로 Lang 학습관에 신청을 했으며, 본격적인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TOEIC, TOFEL, IELTS, 공무원영어 뿐만 아니라 해외 강연이나 미국TV내용과 같은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을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습 유형은 단어학습, 정규(문장)학습, 오답강화 코스와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나는 먼저 단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해 보았다. 그런 후 나에게 딱 맞는 수준의 학습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단어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미리 구분해 놓도록 되어있어 아는 단어를 제외하고 몰랐던 단어로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영단어 스펠링을 직접 타이핑 해보고, 따라 읽어보고, 해석된 예문을 본 후 직접 영작해보는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마무리 확인 테스트까지 진행하여 그날의 학습 내용이 완벽하게 암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정규학습 코스에서는 주로 문법 위주의 학습을 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서브챕터를 선택하여 잘 정리된 문법 개념들을 보며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한 후, 그 내용이 적용된 예문으로 반복학습하고 빈칸 채우기 형식의 간단한 테스트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학습함으로써 문법 개념이 문장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법한 회화나 실용 숙어들을 학습 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 강연 내용에 대한 챕터를 학습할 때 도움을 받은 것인데, 발화자의 발음과 억양에 집중하여 원본 영상을 먼저 시청한 후 그 영상에 나온 문장들을 학습해 봄으로써 외국인이 실생활 속 실제로 어떤 숙어들을 사용하여 대화하는지 그 회화들을 자세히 학습할 수 있었다. 모든 학습을 마친 후에는 오답강화 코스를 이용하여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완벽하게 그 날의 학습이 마무리 되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은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음으로써 나의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을 직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던 점이다. 학습을 진행할 때는 반복적으로 그 단어나 문장을 상기시켜 주어 더욱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었다.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잡아주는 오답 강화 코스도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했고 배웠던 단어와 활용된 문장들을 완벽하게 암기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외국 강연을 통해 배운 영어는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 원어민 교수님과 소통해야 하는 나에게 매우 실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연 내용 자체도 깨달음을 주는 뜻 깊고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식의 향상뿐만 아닌 내면의 성장 또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날짜별로 개인학습태도를 분석한 것을 그래프로 시각화 하여 보여준 것이다. 이는 내가 더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자극을 주었고 방학동안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학습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학습하는 동안 아쉬웠던 점은 문법 코스에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에만 충실하여 조금은 쉽게 느껴지는 챕터가 많았다는 것이다. 영어공부에 있어 단어학습이나 회화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법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더 심화된 학습코스가 없었던 점이 조금은 아쉬웠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서로 다름을 반영하여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포괄성 있게 챕터가 구성된다면 영어공부를 돕기 위한 더 좋은 학습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성결대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교양 필수 과목인 영어커뮤니케이션을 필수로 두 학기 수강해야 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영어로 대화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후에 교내 모의토익을 두 차례 정도 치르게 된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도 토익이 중요한 스펙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과 능숙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든지, 토익 점수를 향상하기 위해서든지 영어 공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한다면 비싼 돈 들여 인강을 듣거나 학원에 다니는 것만큼, 어쩌면 그 보다 더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우분들께도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내는 이러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다.